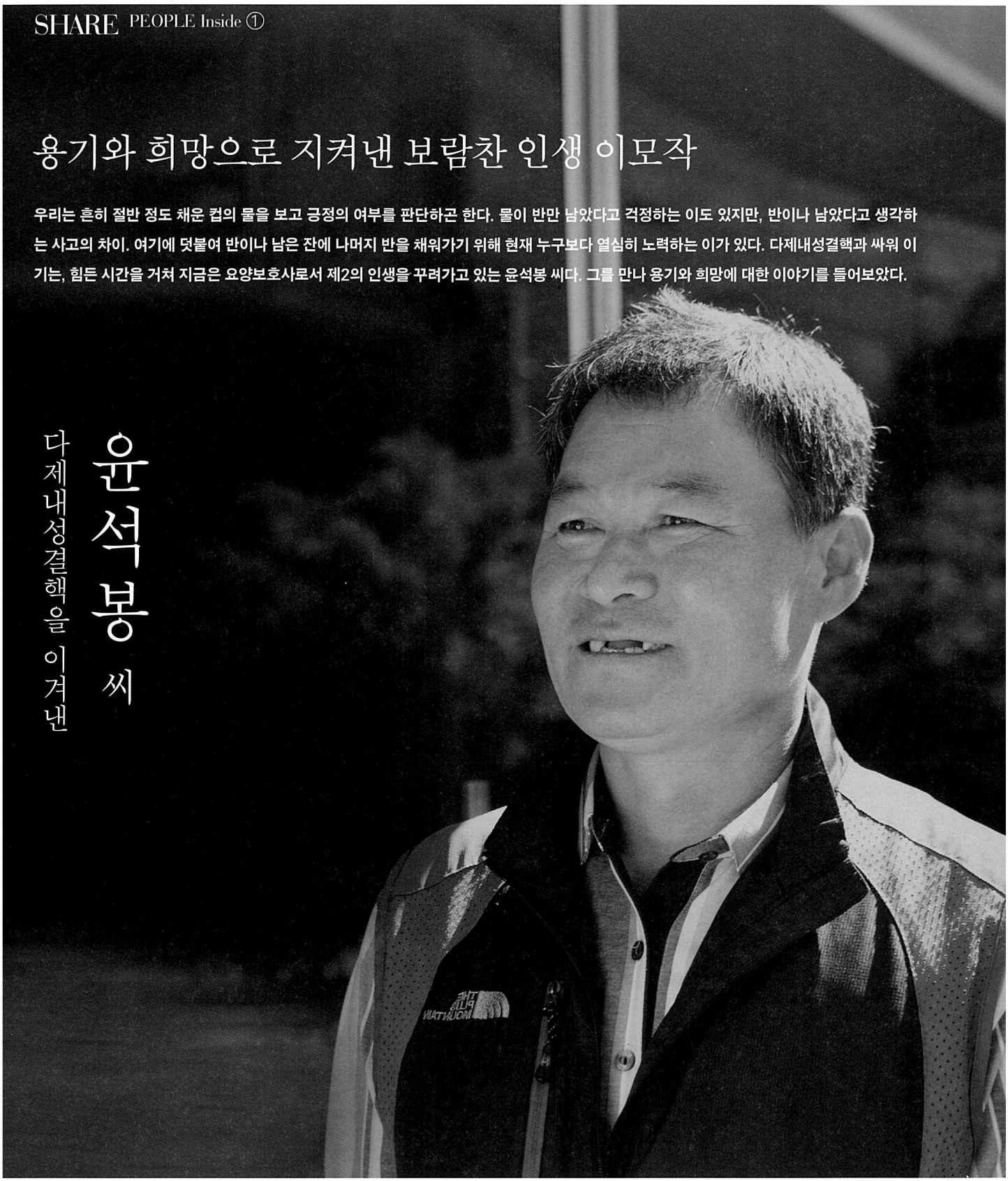
용기와 희망으로 지켜낸 보람찬 인생 이모작

우리는 흔히 절반 정도 채운 컵의 물을 보고 긍정의 여부를 판단하곤 한다. 물이 반만 남았다고 걱정하는 이도 있지만,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 여기에 덧붙여 반이나 남은 잔에 나머지 반을 채워가기 위해 현재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이가 있다. 다제내성결핵과 싸워 이기는, 힘든 시간을 거쳐 지금은 요양보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윤석봉 씨다. 그를 만나 용기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윤석봉 씨

다제내성결핵을 이겨낸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 ✝

Another day with you!

함께하면 한 뼘, 둘이하면 두 뼘
함께하는 결핵퇴치, 한 뼘만큼 줄어듭니다.
결핵퇴치, 우리 모두 함께해요!

일찍이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박한 세상살이를 경험해야 했던 윤석봉 씨. 그에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 만큼은 그의 자랑거리였다. 넉넉지 않은 환경으로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튼튼한 체력은 그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게 해 준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그러던 그가 결핵과 마주친 것이 지난 2009년의 일.

"갑자기 몇 번의 각혈을 하고 몸이 무거워지더니 음식을 먹어도 맛을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몸무게가 10kg 빠졌는데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컨디션이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힘에 부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 뭔가 탈이 났구나' 싶어 병원을 찾아갔죠." 당시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며 생활하던 그는 들고 있던 합판을 내려놓고 그 길로 서북병원을 찾아가 결핵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무한 긍정의 힘

이제 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건강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윤석봉 씨에게 닥친 청천벽력과도 같은 큰 시련이었다.

"처음에는 2~3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운동부터 시작했죠. 결핵은 잘 먹고 잘 쉬고 약 꼬박꼬박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관리했어요. 그러다 한 달 반 만에 결핵균이 떨어져 퇴원하려 날짜 잡는데 다시 입원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다시 발병했을까 억울하기도 했다는 윤석봉 씨는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진단 앞에서 잠시 좌절도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제내성은 워낙 약이 독해 복용하고 나면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 관절도 안 좋아진다고 하니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 무조건 걷기부터 시작하자 싶어 그때부터 하루 3시간을 꼬박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그는 처음에는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3개월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독한 결핵약을 먹으려면 먼저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합니다.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핵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핵은 결국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라 말하는 윤석봉 씨는 정확히 일 년 만에 결핵균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완치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미소꿈터에서 다시 찾은 인생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미소꿈터를 찾은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이곳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제가 지금처럼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미소꿈터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 년 동안 미소꿈터에 머무르는 동안 선생님들의 권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한 그는 무사히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고 현재 서북병원에서 노숙인 결핵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낸 일인 만큼 지금의 일이 무척이나 보람되고 재미있다고 말하고 웃는다.

"노숙인 결핵환자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 가장 기뻐요. 저도 결핵을 겪어봐서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결핵환자들이 동료처럼 느껴진다는 윤석봉 씨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다니며,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운동할 것을 권한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결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해보였기 때문이다. ✝